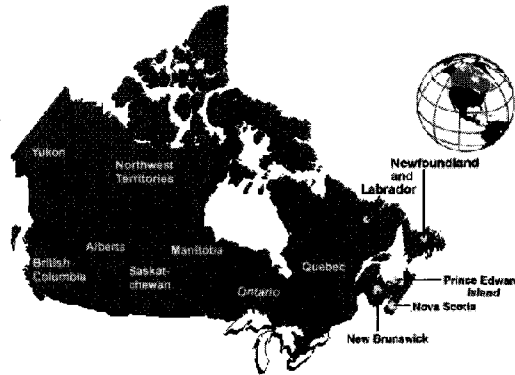




# 앨버타 엘크협회

(The Alberta Elk Association, AEA)

이번호에는 캐나다의 앨버타엘크협회(The Alberta Elk Association, AEA)를 소개한다. 캐나다 내에서도 많은 협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00년도 제1회 ASPT(국제녹용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열린바 있는 곳이 앨버타주로 여기에 앨버타엘크협회가 있다.



먼저 캐나다 앨버타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리학적 위치 : 캐나다내의 서부에서 두 번째 위치한 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인접.

면 적 : 661,185 평방km, 한반도의 약 6.5배

인 구 : 약 300만명

주 수 도 : 에드몬톤 (인구/약 90만명)

산 업 중심지 : 캘거리 (인구/약 82만명)

앨버타 주민들은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장받고 있고, 모든 거주자에게 무상교육(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을 제공한다. 따라서 높은 생활수준과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이 일

년 내내 가능하다. 또한 1988년 동계올림픽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앨버타주에는 사계절이 있으며, 대단히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일년 중 270일 이상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앨버타 주정부 역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앨버타는 서부 캐나다의 대초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이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프 국립공원이 앨버타주에 위치하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으로 캐나다 전체 석유 및 가스제품 생산량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66만 평방 km 가량인 앨버타주 면적의 3분의 2 가량이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산림업

은 앨버타주의 매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다.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캐나다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주정부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주이기도 하다.

앨버타 엘크협회(AEA)는 앨버타주의 개인과 농장 그리고 법인들을 적극적으로 보조해주고 양록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The Alberta Elk Association (AEA)

협회는 1988년 9월에 앨버타 게임사육자 협회 (Alberta Game Growers Association)로 설립되었다. 1993년에는 그 이름을 앨버타 녹육협의회 (Alberta Venison Council, AVC)로 바꾸어 1994년 말에 앨버타 녹육협의회(AVC) 회원이 123명이 됐다.

1998년에 앨버타 녹육협의회(AVC)는 앨버타엘크협회로서 운영을 시작했고, 1999년에 정식으로 이름으로 바꾸어 그 기능을 갖게 됐으며 앨버타엘크협회(AEA)는 최근 418명의 양록농가 회원에 2만여두의 엘크를 사육하게 됐다.

앨버타엘크협회(AEA)는 이사회의 각 지부에서부터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 운영된다. 행정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과 전직회장, 회계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자와 사무관리자는 협회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 앨버타엘크협회(AEA)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정부와 양록인들과의 연결하는 가교(다리) 역할을 한다. 정부와 농민이 단독으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견교환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록인의 편에서 대표성과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양록관련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 녹육협의회(CVC)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의 보상문제나 환경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또한 양록인들 사이의 교류와 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록산업에 관계되는 이상적인 것이나 사건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회원들에게 상담해주고 해마다 열리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구독할 수 있는 협회지 및 사슴농가 잡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앨버타 지역의 다른 회원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양륙산업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륙연구에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 연구센터, 대학 그리고 사설 연구소에 양륙산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자금을 제공하고 협조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 협회로서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현 앨버타 엘크협회(AEA)장은 데브라 스미스(Debra Smith)씨가 맡고 있다.

앨버타 지역의 양륙산업도 북미나 뉴질랜드, 유럽 등 서구권 나라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 주로 소비되는 양륙생산물은 녹용보다도 녹육(사슴고기)쪽에 비중이 더 크다. 따라서 사슴고기를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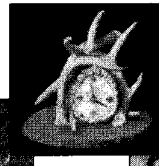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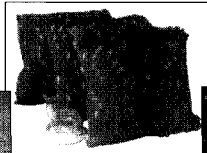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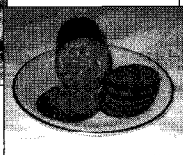


▲ 민가에 내려와 노는 야성엘크

으며,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영양적인 면이나 풍미 그리고 요리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우수성을 알리는 마케팅을 꾸준히 하여 있으며, 고급 요리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고기생산 외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사슴뿔은 수출을 위해 채취하지만 외형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장식용 등으로 녹각이 될 때까지 키우게 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우수녹용선발대회에서는 녹용 외에 따로 녹각부분도 큰 비중을 가지고 치뤄지고 있다. 또한 게임농장이라고 하여 레저 활동으로 반 야생 사슴들을 사냥하는 프로그램 등이 발달하여 사냥용으로도 사슴들이 많이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녹용의 약효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연구가 시작되면서 녹용을 의약품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현지에서 녹용의 약효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상으로 앨버타엘크협회(AEA)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세계 어디를 가든 지 간에 양륙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생산단체 중심의 강력한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앨버타 야생사슴들이 민가에 내려와 풀을 뜯고 쉬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다. **인국양륙**



▲ 알버타 양륙산업의 녹육가공, 및 녹각공예품 그리고 게임농장.